

## 2013 4.21 부활제 4 주일 (성소주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13,14.43-52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제 2 독서 : 요한복음 7,9.14 L-17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것 입니다.>

복 음 : 요한 10,27-30 <나는 내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부활제 4 주일입니다. 제 1 독서와 복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복음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의 앞뒤를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하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냐? 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 내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시며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 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일을 많이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 고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임을 밝혀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듭니다. 제 1 독서는 바오로가 전교여행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화당에 들어가 앉았다.”** 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주님에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을 듣고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유대인들은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시기하여 박해하고 그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제 1 독서와 복음에서 보이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잘되는 것을 보고 행복합니까? 그들의 행복을 보고 왜 우리는 행복해 질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우리를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 하셨기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성소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미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 미국에서는 지원자조차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도록 하며 키우지를 않기 때문 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음성을 식별해 내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모태신앙을 가진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안에서 키우고 자녀들이 사제나 수도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소가 적어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국은 지금 교구마다 신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을 뽑으면서 커트라인제도를 실시합니다. 즉 세속의기준으로 신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인간성, 영적인면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적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운영을 정부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되었을때 영적으로 부족한 사제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1970 년대 1980 년대의 정의 구현 사제단은 한국사회에 중요한일, 큰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실수를하곤 합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에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어느 회사나 개인, 정치인의 불의를 고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세상안에서 그 말씀대로 진리를 살아내고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안에서 살때에 우리는 **저 세상에서** 오늘 요한 묵시록의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모든이들이 **하느님앞에서 하나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우리가 구분해내는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나되어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 속에 큰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 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랴.

들짐승들과, 송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